

종합 ▶ 5면

2016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개최

송년특집 ▶ 6면

2016년 국내 방송계 회고

오피니언 ▶ 7면

[칼럼] 타임머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언론도 공범이다

12월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촛불이 아닌 횃불이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 중 마스크를 쓴 청년들이 길이 80센티 가량의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향했다. ‘잘못했다’, ‘물러나겠다’가 아닌 ‘국회의 선택에 맡기겠다’로 답변한 대통령을 향한 횃불이었다. 이들은 청와대를 불과 100m 앞두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다. ©뉴시스

### “언론 게이트 철저히 조사해야”

### “권력과 언론 분리시킬 제도적 장치 필요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SBS까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기 매우 어려웠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공범이 됐다. 이것을 어둠 속에 묻어두려고 한 거다. 반성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 편에서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한 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으로 확산되면서 언론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1월 23일 오후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 ‘박근혜, 비선, 재벌 이제는 언론 게이트다’에 참석한 김영미 PD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이하게 언론계 비리는 안 나온다”며 “촛불이 언론을 향해

기 전에 언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PD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장에 가 보면 (국민들로부터) 언론도 공범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고, 저 역시 얼마 전 직접 들었다”며 “언론이 지금이라도 어떤 액션을 취할지 논의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곳곳에서는 ‘니들도 공범’, ‘각성하라’, ‘너희가 기자냐’ 등의 글귀를 쉽게 볼 수 있다.

김 PD는 “저는 언론사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를 뽑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용기를 내어 질문하는 기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느냐”고 지적한 뒤 “예를 들어 ‘언론계 종사자는 청와대에 갈 수 없다’는 권리와 언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찬 MBC 기자는 “공정방송협의회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내부의 논의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며 “현재 MBC 내부에서는 문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역시 “언론 게이트 가장 밑바닥의 기레기 기자들, 각하에게 질문한 마디 못 던지는 청와대 어용기자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며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커넥션에 이은 언론 게이트 조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긴급 간담회 ‘최순실 사태, 언론 보도를 논하다’에 참석한 정수영 KBS 기자, 이호찬 MBC 기자도 자사의 보도 행태를 언급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정수영 KBS 기자는 “촛불집회 취재를 간 취재진 차에 ‘니들도 공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며 “우스갯 소리가 아닌 사실”이라고 말한 뒤 “JTBC에서 태블릿 보도를 안 했다면 KBS는 여전히 최순실에 대한 보도를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호찬 MBC 기자는 “공정방송협의회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내부의 논의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며 “현재 MBC 내부에서는 문

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족이 부당 전보를 내면 1심, 2심, 3심, 대법을 거쳐 2~3년 뒤에 복귀하고 또 다시 사족은 부당 전보를 내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내부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 자체에 부담감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이번 사태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권력이나 경영진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미 PD와 마찬가지로 언론이 권력이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닐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언론 게이트와 함께 학계에서도 빼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정부 응역을 했느냐”며 “학계가 정부의 방송 미디어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일 매일 너무 많은 팩트들이 나

오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 요즘에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며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폐쇄적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면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 게이트 내용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시에 권력 감시자로서 언론이 제대로 서려면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조차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장을 내놓고 있어 언론계와 학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백선하 baek@kobeta.com

## 지상파 UHD 3단계 RF 송수신 정합 시험 실시

### ATSC 3.0 물리계층 기반으로 구현된 송수신 정합 시험



내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앞두고 방송사와 제조사들이 모여 지상파 UHD 3단계 RF 송수신 정합 시험을 실시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의 주체인 KBS·MBC·SBS·EBS 등 지상파 4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수신기 제조사 2개사, Enensys(SMCNS)·ATBIS 등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Broadcast Gateway) 제조사 2개사, ProTelevision(진명통신)·클레버로직(ETRI) 등 송신기 제조사 2개사, 클레버로직(애니뮤직텍)·Dek Tec(JNS)·TriveniDigital(에이브넷) 등 분석기 제조사 3개사 등은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4층에서 ATSC 3.0 물리계층 최신 표준 문서 기반으로 구현된 송신부와 수신부 간 정합 시험을 진행했다.

정합 시험이란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해 송·수신기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서로 맞물려 송신기에서 보낸 신호를 수신기에서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표준 규격 내 기술을 오류 없이 구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제조사들은 이번 시험에서 기준시간 동기 확인 및 송·수신기 연결 후 영상 확인, Wall Clock 정보 송수신 확인, ATSC3.0 Bootstrap 내 재난 경보 비트 시험, SFN 단일 주파수 방송망 실험 시험, 전송 파라미터 세팅 검증 등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날 시험은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에는 NTP+1PPS 또는 GPS로, 익사이터(Exciter)에서는 GPS로 기준 시간 동기 신호를 입력받은 뒤 장치에서 내부 클록

(Clock)이 아닌 외부에서 입력받은 기준 시간 동기로 정상 동작하는지 제어 화면 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수신기 계측 화면에서 입력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기준 시간 동기 확인’부터 이뤄졌다.

이어 S-PLP/서브프레임(Subframe)과 M-PLP/서브프레임 조건에서 본방송 송출 과정과 유사하게 송·수신기를 설치·연결한 뒤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스트리밍이 TV 수상기에서 영상으로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전송 파라미터 세팅 검증’을 진행했다.

또한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모든 익사이터(Exciter)의 주파수를 756MHz로 설정한 뒤 TV 수상기에서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하는 ‘SFN 단일 주파수 방송망 실험 시험’을 진행했다. 참여 기관들은 송신기 각각의 출력과 딜레이(Delay)를 조절해 가면서 영상의 양시청 여부와 스펙트럼의 변화를 함께 확인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KBS “이제는 총파업이다!”



공정방송 쟁취, 보도 참사·독선 경영 심판을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암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KBS 새노조는 12월 8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는 KBS 새노조를 비롯해 KBS 모든 노동조합 소속 투표권자 3,782명 중 2,995명이 참여했다. 이 중 투표 인원 대비 85.5%인 2,562명이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재직 인원 대비 67.7% 찬성률인 것으로 집계됐다.

KBS 새노조는 12월 1일 특보 198호를 통해 “투표가 가능한 재직 조합원의 2/3를 넘는 숫자가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지금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에 대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85.5% 찬성

12월 8일 오전 6시 총파업 돌입

한 실망과 분노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힘찬 총파업 투쟁에서 하나로 뭉쳐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6인의 본부장에 대해서도 암도적 불신임으로 흑독한 심판을 내렸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김인영 보도본부장은 투표 대비 92%, 재직 대비 77%라는 역대급 불신임률을 기록했다.

KBS 새노조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공정방송 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김성수, 김인영, 박병영 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1/2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조인석, 박희성, 김대희 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KBS 새노조는 12월 8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되 교대 근무자 및 시차 근무자 중 12월 7일 아침 근무자는 해당 근무를 종료하고,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개인별 불이익은 조합원 전체가 분담하고,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12월 3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뒤 12월 5일 자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투쟁, 12월 8일 언론노조 주최로 열리는 ‘방송 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 관계법 개정안 통과 요구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KBS 새노조는 “12월 8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면서 “앞장서 KBS 안의 박근혜 체제를 뿌리뽑겠다”고 강력 선언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JTBC로 본다

응답자 2명 중 1명 JTBC 보도 지지

태블릿 PC를 입수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단독 보도한 JTBC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에스오아이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공영방송 보도 관련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5.7%가 JTBC의 뉴스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JTBC의 뒤는 KBS 16.3%, TV조선 7.5%, MBN 7.1%, MBC 5.8%, SBS 3.2%, 채널A 2.3% 순이었다. JTBC 외의 방송 뉴스는 전체

를 합쳐도 42.2%(기타 7.8%와 무응답 4.5%)로 JTBC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청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뉴스를 많이 보도하는 방송사도 JTBC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9.6%가 JTBC라고 답했으며, KBS와 MBC, SBS 등의 지상파 방송사는 한 자릿수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12.5%)보다 비중이 적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 보도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5%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시청

자들은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차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은 KBS와 MBC 중계차와 취재진을 보면서 ‘언론도 공범’, ‘KBS 부역자 청산’, ‘MBC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올바른 보도를 촉구했다.

응답자의 40.3%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언론 통제’ 때문에 KBS와 MBC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사장과 이사, 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통제 때문이라는 답변 22.9%, 여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는 답변도 11.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KBS나 MBC 기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여야 동수

주천,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 적용, 사장주천위원회 구성,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공영방송이 지금과 같은 평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에스오아이가 실시한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 59.6% 여야가 7:6의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촛불집회에 참가한 고등학생인 김기준(18)군은 “현행법대로라면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KBS 이사, 사장에 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 그 중에서도 가장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기 위해선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건 고등학생인 저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KBS 직원들도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 CJ E&M으로 넘어간 ‘티빙’ 전면 개편

“CJ E&M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브랜드로 육성할 것”



CJ헬로비전에서 CJ E&M으로 이관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 ‘티빙’이 콘텐츠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CJ E&M은 11월 30일 ‘티빙’을 CJ E&M의 대표 디지털 플랫폼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J헬로비전은 26억 원 규모의 티빙 사업권을 CJ E&M에 양도한 바 있다. 티빙 이관을 둘러싸고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티빙을 SK텔레콤으로 합병시키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운영 주체가 바뀐 뒤 1년여 동안 이렇다 할 계획조차 나오지 않자 업계에서는 사업 존속 문제까지 언급되었으나 이번 발표로 관심은 다시 ‘티빙’의 재도약으로 쏠리고 있다.

CJ E&M은 tvN, Mnet 등 CJ E&M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최상위 도메인을 ‘tving.com’으로 전환했다. 소비자들이 티빙

으로 모든 방송을 이용토록 한 것이다.

티빙의 브랜드 로고도 변경했다. 간결하고 절제된 느낌의 글자체를 사용해 소비자 신뢰도와 CJ E&M의 채널 이미지와의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티빙 내 자체 신규 서비스를 선보여 OTT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용 스피드 오프 콘텐츠를 만들어 ‘티빙 라이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tvN <코미디빅리그> 출연진들이 대기실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프 더 코빅>을 디지털용으로 만들어 선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구성됐던 카드 뉴스에 영상까지 더한 카드 뉴스 서비스도 신규 도입한다.

고창남 CJ E&M 티빙사업팀장은 “지난 1월 티빙 사업을 CJ헬로비전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처음 개편 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접근성 확대 및 콘텐츠에 대한 경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티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티빙은 현재 tvN·Mnet·온스타일 등 147개 채널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1만 6,000여 개의 방송, 영화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 ‘다이아 티비’ 내년 1월 1일 개국

진정한 1인 방송 시대…“새로운 콘텐츠 소비 방식”



1인 창작자 방송으로 구성된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전문 채널 ‘다이아 티비(DIA TV)’가 내년 1월 1일 개국한다.

CJ E&M은 11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리에이터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인 다이아 티비가 내년 1월 1일 개국한다고 밝혔다.

CJ E&M이 지난 2015년 5월 출시한 다이아 티비는 1인 창작자 방송으로 주로 뷰티 콘텐츠 제작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11월까지 월간 조회수 100만 회 이상인 뷰티 제작자들이 16개 팀이며, 해외 시청 비율도 전체의 25%로 높은 편이다.

CJ E&M은 지금보다 더 1인 콘텐츠 제작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CJ E&M은 전용 스튜디오 제공부터 마케팅, 저작권 관리,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콘텐츠 유통 등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이아 티비는 생방송과 녹화 방송으로 구성되며, 모바일과 똑같이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다이아 티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TV를 보면서 댓글을 올릴 수 있다. 댓글은 자체 심의를 거친 뒤 화면에 노출된다.

생방송은 시청대가 높은 오후 8~10시에 집중 편성될 예정이다. 생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1인 콘텐츠 제작자 1,000개 팀이 만든 콘텐츠가 편성되며, 뷰티 이외에도 게임·뮤직·푸드·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엄선된 영상들이 방송될 예정이다. CJ E&M은 현재 1,000여 개 팀에 달하는 1인 콘텐츠 제작자를 내년에는 2배로 늘려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다이아티비 본부장은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생방송 뒤 편집본을 방송으로 내보내지만 다이아 티비의 실시간 방송은 진짜 말 그래도 생방송”이라며 “그동안 온라인 기반 플랫폼에만 머물렀던 1인 방송이 다이아 티비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 진출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 소비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 방통위, 창조경제박람회서 지상파 UHD 서비스 시연

UHD 홈 포털 서비스로 미래형 방송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차세대 방송기술인 ATSC 3.0을 기반으로 한 다양 한 미래 방송 서비스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2016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여해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4사 등과 협력해 UHD 방송 등 다양한 미래 방송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단순한 화질 개선의 차원을 넘어 실시간 비밀시간 콘텐츠를 아우르는 UHD 홈 포털 서비스를 통해 미래형 방송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데이터 연동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재난 발생 시 긴급 알림 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에 둔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시연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장 안테나의 수신 성능도 확인할 수 있었다. UHD TV에 내장 안테나를 장착하고 시연함으로써 수신 성능을 직

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치 기반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 광고를 하지 못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 송출비 할인 등 광고 활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지상파 UHD 방송의 활성화, 중소기업 방송 광고 제작·송출 지원 등 방송 통신 산업 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숙희 sh45@kobeta.com

## 방송기술용어

### 아마존 에코 Amazon Echo

아마존 에코(Amazon Echo)는 아마존에서 스스로 ‘스피커’라고 칭하고 있지만 소리를 듣는 기능이 전부가 아니다. 음성 인식과 대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묻고 대답까지 들을 수 있는 ‘음성 비서’인 것이다. 이런 제품에 대한 정식 명칭은 아직 없지만 ‘스마트 스피커’로 통용되고 있다.

사실 아마존 에코는 2년 전 출시 당시에는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AI)에 폭발적 관심이 쏠리고 AI 활용 방식의 선봉에 음성 비서가 있으면서, 스마트 스피커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아마존 에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CIRP에 따르면 올해 9월(현지 시간)까지 아마존 에코의 미국 내 판매량은

510만 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2016년 판매량이 200만 대를 기록해 전체 판매량의 39.2%를 차지했다.

또, 시장조사업체 1010데이터의 올해 1월 조사에 의하면 2015년 미국 전체 스피커 판매에서 아마존 에코의 점유율은 25.9%로, 전통적인 스피커 제조사인 보스나 소노스를 넘어서고 있다.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 CEO는 지난 4월 21일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10년은 AI First 시대”라고 말했다. AI가 우선인 시대에 음성 비서를 내세운 스마트 스피커와 그 시장 선두에 있는 아마존 에코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갈지 주목해볼 시점이다.

전숙희 sh45@kobeta.com

## 정기국회 12월 9일까지…최악의 ‘빈손’ 국회 되나?

20대 미방위, 법안 처리 ‘0’건의 불명예 쓸까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개정 후
이사회(여 7, 애 4)	이사회(여 7, 애 6)
사장추천위 X	사장추천위 O
특별다수제 X	특별다수제 O
편성위원회(형식적)	편성위원회(권한 확장)
차별 조항 X	차별 조항 O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20대 정기국회 일정이 12월 9일에 끝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행을 거듭하고 있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라 불렸던 제19대 국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별씨부터 제기되고 있다.

애초 미방위는 11월 16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109개 법안을 법안심

사소위원회에 넘기려 했지만 일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회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은 “3당 간사들이 모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먼저 올리자고 했었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경으로 11월 16일과 17일로 예정됐던 미방위 법안소위는 그다음 주로 마무리되었으나 11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7월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여 명이 공동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명 시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등

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던 특별다수제는 KBS 이사회 구조처럼 여야 추천 비율이 정해져 ‘과반수’를 정족수로 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과반이 아닌 ‘2/3 또는 3/4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19대 국회 당시 ‘길한영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KBS 이사회 여야 동수 추천과 특별다수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여야의 의견 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KBS·MBC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JTBC를 훨씬 더 신뢰하는 지금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당장 통과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법안소위에 넘겨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방위는 지난 회의의 과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KBS와 EBS 결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최소 한 차례의 회의는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고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20대 미방위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탄핵안 발의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박근혜 퇴진 성남국민운동본부 등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월 5일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62명이 공동 발의한 ‘(일명)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이 제출된 지 넉 달이 넘었지만 (미방위원장인 신 의원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버티고 있다”며 신 의원을 규탄했다. 이어 “고통길 전 성남 분단갑 국회의원은 지난 2009년 언론장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성남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더니 이제 당신이 또다시 성남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가. 성남 시민들이 언론 장악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는가”라고 지적한 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딜레마에 빠진 PPL…제작비 충당 VS 방송 몰입 방해

PPL 의존 현상 ‘중간 광고 허용’으로 해결 가능할까?…답답한 현실



©방송 화면 캡처

분을 차지함은 물론 클로즈업까지 돼 주인공은 아이소이라는 네이션들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최근 과도한 간접 광고(Product Placement, PPL)가 드라마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PL과 질 높은 방송 프로그램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PPL은 광고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원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때 소품 담당자가 영화에 사용할 소품들을 배치하는 업무를 뜻하던 용어였으나 최근 광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광고를 노리고 영화에 제품을 내보내는 뜻으로 쓰고 있다.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PPL이 도입될 당시에는 배경이 되는 소품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 등 프로그램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PPL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자 드라마의 흐름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결말 등 방향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켓링크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 거주 20세 이상 60세 이하 644명에게 실시한 PPL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KBS와 MBC, SBS, JTBC 등에서 제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본 대상자들은 5점 만점에 3.81, 3.93 등 거의 4 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놓으며 PPL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상품(명칭)이 자막·음성·소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되거나 언급되는 장면,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이 자막·음성·소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되거나 언급되는 장면을 꺼끄러워했다.

12월 1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용준 전북대 교수와 오경수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PPL이 반복

적으로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우 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과 관계없이 노출되는 부분을 특히나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곧 PPL이 제작비 조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광고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시청자를 기만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지 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 이사는 “저희도 PPL 최소화하고 싶다”며 “PPL 때문에 광고주한테 치이고, 작가들한테 치이고, 배우들한테 치이고 정말 PPL 하기 싫지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는 “방송사에서는 드라마 한 회당 약 2억 8천만 원을 주면서 4억짜리로 만들기 원한다. 그럼 회당 1억 2천만 원의 공백이 생기는데 20부작을 만든다고 하면 24억의 광고를 따와야지 미지급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저희도 부끄럽지만 PPL 유통을 각오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 <태양의 후예>는 총 16부작으로 약 130억 원이 들었으며, <달의 연인-보보경심려>는 총 20부작에 약 150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제작비를 기준 광고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PD연합회가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KBS, MBC, SBS 등 3사 서울 지역 PD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27명 중 300명(97.1%)이 ‘PPL 협찬 확대가 제작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301명(92.1%)이 지난 5년 동안 PPL과 협찬의 영향이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PD가 직접 PPL이나 협찬을 유치하기 위해 뛴 적이 있다는 응답도 43.7%(143명)나 됐다. 이들

해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희경 한림대학교 연구교수는 “순수 결합 판매와 끼워 팔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불 의사와 선택의 편의성, 다양성 등을 봐야한다”며 “현재의 결합 판매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끼워 팔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더 싼 가격을 부르며 저가 요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케이블 방송 사업자 측은 자금력, 영업력 등이 월등히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대규 현대HNC 정책연구원은 “정부

중 대다수는 PPL 의존이 스프로그램의 완성도 훼손△제작진의 자율성 침해△방송의 공정성 위협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개인적으로도 프로그램 내용과 삽입을 반대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PPL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제작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에 PPL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PPL과 가상 광고에 대한 안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방송사에서 PPL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사에서도 광고와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PPL이 아니라) 중간 광고를 열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호소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방송법에는 광고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이는 일관되게 방송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PPL이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연합회의 설문 조사에 응한 대다수 PD들은 PPL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 광고 허용을 제시했다. 박 위원의 말처럼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애매해져 프로그램의 작품성과 공익성이 위협받는다면 차라리 프로그램과 광고가 명료하게 구분되는 중간 광고가 낫다는 주장이다.

전정부지로 치솟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PPL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PPL로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PPL을 빼 수도 없고, 넣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과 PPL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여서 PPL을 둘러싼 복잡한 방송 생태계는 당분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 과열된 결합상품 경쟁, 사업자도 소비자도 고충

한국언론학회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언론학회는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용자 이익 보호와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2가지 차원에 중점을 두고 결합상품 관련 법 제도를 고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주환 영남대학교 교수는 재·위탁 판매 등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자회사의 자금이 IPTV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달되고 이로 인

해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희경 한림대학교 연구교수는 “순수 결합 판매와 끼워 팔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불 의사와 선택의 편의성, 다양성 등을 봐야한다”며 “현재의 결합 판매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끼워 팔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더 싼 가격을 부르며 저가 요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케이블 방송 사업자 측은 자금력, 영업력 등이 월등히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대규 현대HNC 정책연구원은 “정부

에서 동등 결합이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통신사가 훨씬 더 많은 영업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는 결합상품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케이블방송이 어려워진 것은 결합상품 판매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의 내부적·외부적 문제도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모든 문제를 결합상품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심 강사는 “법이 부재하다기보다는 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책 당국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부수적으로 법적 미비함을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스스로’ 균절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균절을 위한 ‘자율협의체’ 발대식 개최

통신 4사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5개사 등 총 21개 사업자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 균절을 위한 ‘자율협의체’ 발대식이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LW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

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사업자가 자율적·능동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균절에 참여토록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균절을 위한 건전한 유통 시장 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자율협의체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

북 배포 및 교육 △현장 점검단 운영 및 계도 활동 강화 △허위·과장 광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협리적인 기준 및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의체의 출범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영업 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 코바코, 프로그램 몰입도 발표…시사 교양 강세

##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급증이 PEI 지수에서도 나타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5차 프로그램 몰입도(Program Engagement Index, PEI) 조사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MBC 스페셜> 등 S등급에 속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5개로 늘어난 반면 예능 프로그램이 3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PEI는 시청률(양, Quantity)과 달리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 정도(질, Quality)를 측정하는 지수로 TV 프로그램의 가치 및 영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5차 PEI는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방영된 지

상파 3사 70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 프로그램을 시청한 수도권 13~59세 남녀 5,219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다.

이번 조사에서 S등급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KBS 2TV <수목드라마 공항 가는 길>,<불후의 명곡>, MBC <수목미니시리즈 쇼핑왕 루이>,<경제매거진M>,<주말특별기획 옥중화>,<무한도전>,<MBC 스페셜>,<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접속! 무비월드>,<TV 동물농장> 등 13개다.

코바코는 “이번 조사 기간에 지상파 3사의 수목드라마가 모두 마지막 회를 맞이했는데, 치열한 대전에서 최후에 웃은 프로그램은 MBC <쇼핑왕 루이>였다”며 “<쇼핑왕 루이>는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작했지만 마지막 주에는 시청률과 몰입도 모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웰메이드 드라마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쇼핑왕 루이>는 PEI 136.7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MBC <무한도전>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S등급에 이름을 올렸으며, KBS 2TV <불후의 명곡>도 지난 4차 조사에 이어 2회 연속 S 등급에 포함됐다.

강민정 mj kang@kobeta.com

## ETRI, 무인 자율차 전용 프로세서 첫 개발

### 1GHz급 고성능·자율주행 프로세서(CPU) ‘알데바란’ 개발

국내 연구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자율 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와트(W) 내외의 저전력으로도 무인 자율차의 기능을 실행하는 기가 헤르츠(GHz)급 자동차 전용 프로세서(CPU)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프로세서는 무인 자동차의 센서, 레이더 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술로 센서가 모아준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ETRI의 기술 개발이 그동안 외 국산으로 잠식된 프로세서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LiDAR), 초음파 등 센서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분석, 자동차를 스스로 제어하는 프로세서 반도체에 의해 구동된다. 만약 프로세서에 고장이 발생하면 의도치 않은 조향 제어 등에 의해 차량 탑승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프로세서의 고장 확인 및 해결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ETRI가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알데바란 프로세서는 차량 급발진의 경우처럼 전자 장치가 고장 났을 때 99%의 확률로 이를 확인해 해결한다. ETRI는 “특히 고장 확인 및 해결 기능은 국제표준화단체 ISO의 기능 안전성을 만족하는 세계 최초 기술로 프로세서에 내장된 칩이 차량의 고장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혁신적 자동차용 반도체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산 프로세서가 수백 와트(W)의 전력을 소모하는 데 반해 ETRI 프로세서는 1GHz 동작 시 0.24와트로, 칩에 탑재된 4개 프로세서가 동시 동작 할 시에도 1와트 이하의 전력을 소모한다. ETRI 측은 “타 동급 프로세서 대비, 100배 정도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갖는다”고 말했다.

ETRI는 이번 프로세서가 향후 무인차뿐 아니라

로봇, 전자제품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전자부품에 활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TRI 관계자는 “IT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IP 설계 기술로 보고 있으며 알데바란을 통해 기존의 설계 비용을 25% 수준으로 낮춰 국내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엄나웅 ETRI ICT소재부품연구소장은 “최근 세계적 프로세서 기업이었던 암(ARM)사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인수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프로세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에 의미 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11월 24일 특허청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반도체대전’에서 본 기술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단신

### I 한국언론정보학회장에 문종대 동의대 교수 선출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1월 25일 열린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임시총회에서 문종대 동의대 교수가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7년 5월부터 1년이다.

문 교수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부산 MBC 시청자위원,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학회장,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편집위원장을 거친 뒤 현재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숙희 sh45@kobeta.com

사상 최초다.

‘TVE’는 6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의 공영방송사로, <판타스틱 드디오>는 TVE의 메인 채널인 TVE1에서 프라임 타임에 방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지난 9월 30일, 세계적인 포맷사인 ‘Banijay International’과 배급 대행 계약을 맺고 <판타스틱 드디오>의 포맷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Banijay International의 스페인 계열사인 ‘CuarzoTV’가 <판타스틱 드디오>의 제작에 나서면서 유럽 내 국가에서 최초로 편성을 확정 짓게 됐다. 포맷 수출 계약 업무를 담당한 김인순 SBS 글로벌제작 사업팀 매니저는 “TVE는 스페인어권인 남미에도 방영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라며 <판타스틱 드디오>의 콘셉트는 노래, 춤을 좋아하는 남미 시청자들에 친숙한 소재이기에 스페인어로 제작되는 ‘Duo fantastic-(스페인어 제목)’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판타스틱 드디오>의 남미 진출도 긍정적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BS는 <런닝맨>, <오 마이 베이비>, <정글의 법칙>, <판타스틱 드디오> 등 자사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국 및 아시아 방송 시장을 넘어 유럽, 북미, 중남미 등 글로벌 콘텐츠

초 진출과 한류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 I ‘퐁당퐁당 LOVE’ 국제 에미상 결선



지난해 12월, MBC 창사 기념 특집 드라마로 방송돼 큰 사랑을 받았던 <퐁당퐁당 LOVE>가 ‘2016 국제 에미상’ TV 영화·미니시리즈 부문의 결선에 진출했다.

1973년 설립된 ‘국제 에미상’은 세계 TV 방송 프로그램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국제상으로 유럽과 남미 프로그램이 주요 수상작으로 선정돼 왔다.

MBC는 지난 2010년 <휴먼다큐멘터리 사랑·풀빵 엄마>가 한국 최초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상한 이후 2013년 <안녕?! 오케스트라>가 예술 프로그램 부문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드라마로는 지난 2012년 드라마 <불굴의 며느리>가 한국 최초로 텔레노벨라 부문 결선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퐁당퐁당 LOVE>가 올해 TV 영화·미니시리즈 부문 결선에 진출해 성과를 올렸다.

김지현 PD는 “신나고 재밌게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이런 국제적인 자리까지 초대해 주어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결선 진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느닷없이 비를 맞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 드라마를 떠올리며 조금은 ‘괜찮아’겠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시청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퐁당퐁당 LOVE>는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수포자’(수학포기자) 고3 단비(김슬기)가 비가 내리는 날 우연히 조선 시대로 돌아가 왕 이도(윤두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성장 드라마다. 방영 당시 MBC에서 최초로 온라인과 방송용 작업을 분리해 제작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 ‘UHD 방송기술 세미나’ 교육 안내

###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 시작을 대비하여 새로운 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쟁점 및 향후 전망 심층 논의

### •지상파 UHD 추진 경과 및 기술 동향, 전송 기술 등

차세대 방송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우수 방송기술 인력 양성

교육 일정 2016.12.08.(목), 13시 ~ 18시

교육 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30명

교육 장소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교육비 무료

접수 방법 11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 당일 현장에서 강의 교재를 드립니다.

담당자 민서진 대리, 박세나

문의사항 02-3219-5640~1

E-mail bea@kobeta.com

시간	교육내용	강사
13:00 ~ 13:30	•교육 안내 : 교육 사업 소개, 교육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방송기술교육원
13:30 ~ 14:50	•지상파 UHD 방송 추진 경과 - 700MHz 주파수 분배 경과, UHD 방송 도입 추진 현황 •앞으로 남겨진 과제 : UHD 방송의 미래	SBS UHD추진팀 이상진 차장
14:50 ~ 15:00	휴식	
15:00 ~ 16:20	•세대 지상파 방송 표준 개요 : 전송 기술 중심 - ATSC1.0과 ATSC3.0 표준 비교 - DVB-T2와 ATSC3.0 표준 비교 - 방송망 구축을 위한 ATSC3.0 표준 - 국내 표준 활동, 실험 방송 등 본방송 준비 현황 •ATSC3.0 기반 송신 시스템과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구축 - A/324 표준 기반 Broadcast Gateway - A/321와 A/322 표준 기반 Exciter - 장비 설치 및 전송 파라미터 설정의 실제 •ATSC3.0 SFN 운용과 관리를 위한 필드테스트 - SFN망에서의 실내외 CIR 채널 분석과 커버리지 최적화 -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따른 무선국 수검 항목 해설	KBS 미래기술연구소 전성호 책임연구원
16:20 ~ 16:30	휴식	
16:30 ~ 17:50	•UHD 기술 동향 - UHD 방송을 위한 SDI 신호 구조 - HDR과 WCG(Wide Color Gamut)	텍트로닉스 (Tektronix) 우주형부장
17:50 ~ 18:00	•설문조사 : 설문지 배포 및 작성	방송기술교육원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16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가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병국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원장, 박상일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부회장, 신영식 한국이엔엑스 전무 등 내·외빈 인사와 약 250여 명의 방송기술인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김진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박종석 연합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친목 단체에서 국내 유일의 방송 기술 정책 교육 단체로 발돋움하기까지 연합회원들과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연합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 등장과 함께 미디어 시장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며 “방송기술인들이 기존의 업무를 넘어 초융합시대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도전하는 연합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사에 이어 진행된 유강석 제7, 8대 연합회장의 축사에서도 연합회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다. 유 전 연합회장은 “KBS에도 노동조합이 없던 어려웠던 시절, 1987년에 연합회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회는 창립 이후부터 방송기술 발전과 방송 문화 창달을 비롯해 방송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90년대 방송의 독립, 2000년대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연합회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현 연합회장과 집행부 분들에게 앞으로도 큰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2016 방송기술대상의 영예는 죄영학 CBS 기술연구소장이 차지했다. 연합회는 “최 소장이 차세대 오디오 파일 시스템과 송신소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함으로써 제작 환경과 송출 시스템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라디오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라디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라디오 관련 아이템으로 방송기술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소장은 “갑작스러운 대상 수상 소식을 듣고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차분히 생각해보니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며 “메이저 방송사도 아닌 CBS 구성원이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TV나 뉴미디어 아이템이 아닌 라디오, 게다가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하이브리드 라디오로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문이 들었다”고 막문을 열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연합회 초창기 멤버로 꾸준히 활동을 해 온 CBS의 열의와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제 개인이 아닌 CBS 방송기술인협회에 주는 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는 다른 매체에 비해 영향력도 크지 않고 더욱 축소되고 있는 매체로 아직 디지털 전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전파와 인터넷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라디오를 생각하게 돼 올해부터 그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에 관심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려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감사패는 연합회 산하단체인 방송기술교육원의  
파트너로 미래방송기술창의인력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RAPA 이병국 전파방송통신인재개

발원장이 받았다. 이 원장은 “연합회 출범이 근 30년이 됐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RAPA도) 앞으로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기술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대상과 감사패 이외에도 △특별상(KBS 박승우) 총 1명 △최우수상(SBS 김상진, MBC 노민철, KBS 전성호) 총 3명 △우수상(SBS 정의준, MBC 스마트특수영상제작팀, EBS 이홍식, KNN 이종록, YTN 신동훈) 총 5팀 △장려상(OBS 원태희, tbs 김동식, 아리랑국제방송 주조정실) 총 3팀 등 총 12팀에 방송기술 및 방송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를 인정하고 포상했다.

한편 지난 1988년 제정된 방송기술대상은 해마다 실시되는 행사로 국내 방송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자긍심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수여되는 방송기술 분야에서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나진 이진범 inb1001@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송년특집 |

2016

## 년 국내 방송계 회고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가파르다. 국내 방송가 역시 지난 한 해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2017년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년간 국내 방송가는 다양한 화제로 떠들썩했다. 상반기는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지상파방송의 VOD 공급 중단, UHD 방송 표준 및 2017년 본 방송 확정이 화두였다면 하반기는 단연 한한령(중국의 한류 콘텐츠 불매), 리우올림픽, 지상파 재전송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올 한 해 국내 방송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성사 여부였다. 2015년 말 갑작스럽게 발표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선언은 국내 1위 케이블TV MSO와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과장을 불러왔다. 만약 이들 2개의 사업자가 인수합병에 성공한다면 말 그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대 방송 사업자 탄생으로 국내 방송계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방송 업계, 정부 부처, 학계, 언론계까지 찬반으로 진영을 나눠 논쟁에 뛰어들면서 2016년 상반기 내내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슈가 방송가를 지배했다. 하지만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 불허를 선언하면서 다소 싱겁게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논의하려고 기다렸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손씨를 틈도 없이 논의가 종결되는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을 지역별 시장으로 획정하고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 중 SK텔레콤과의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인 지역이 21개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권역별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인수합병 불허를 결정함에 따라 유료방송 담당부처인 미래부도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을 개최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료방송발전연구반에서는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플랫폼의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공정경쟁 환경 조성(허가 체계, 소유 겹영, 사업 권역, 결합상품, 대가 분쟁), 시청자 후생 제고(디지털 전환, 지역성 강화), 산업적 성장 지원(요금 구조 개선, 서비스 혁신) 등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이뤄졌다. 비록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무산됐지만 통합방송법의 제정이나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의 제언 등에 따라 소유 겹영에 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언제라도 케이블TV와 IPTV의 인수합병이

재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유료방송의 인수합병 문제는 언제라도 재점화가 가능한 폭발력 있는 이슈로 한동안 이목의 대상이다.

**<태양의 후예>의 인기와 한한령**

<태양의 후예>가 공전의 인기를 끌면서 지난 상반기 한류는 상종가를 맞이했다. 중국 내 한류 인기로 방송 콘텐츠 수출이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내 한류의 인기몰이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콘텐츠 유통 금지령이라는 소위 ‘한한령’(限韓令)을 들고 나오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물론 한한령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중국 광고에 등장하던 한국의 인기 스타들이 줄줄이 광고에서 하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상반기는 한국 연예인의 중국 프로그램 출연 자체를 금지했다거나 방송 허가가 난 프로그램의 경우는 출연 장면을 편집하거나 인터넷으로만 방송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식의 소문만이 무성했지만, 하반기는 아예 한류 콘텐츠의 사전 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통과한 작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과의 방송 제작 교류가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사태도 줄을 잇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소문에 머물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자침을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일시적인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미디어 종활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관전총국이 한국 스타들의 중국 공연과 한국 영화의 중국 상영을 승인치 않고, 유쿠(優酷), 아이치이(愛奇藝)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규 업로드를 자제하라는 협조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한령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화 문예 부흥 선언을 하면서 2017년 한한류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UHD 방송 기술 표준 및 2017년 본방송 확정**

논란을 이어온 지상파 UHD 방송의 표준 방식이 정해졌다. 지난 9월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 표준 방식과 기술 기준을 정한 ‘방송 표준 방식 및 방송 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을 북미식(ATSC 3.0) 방송 표준 방식으로 확정했다. 북미식 방송 표준 방식은 지상파 UHD 방송 표준 방식 협의회에서 유럽식 표준(DVB-T2)과 비교 검토해 국내 환경에 보다 적

합하다고 미래부에 건의한 것이다.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 성능이 더 우수하고, 인터넷(IP) 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 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이 결정된 이후, 2016년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 대역의 지상파 할당을 승인하고 2017년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을 필두로 전국적인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은 2017년 2월 수도권 지역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수도권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KBS, MBC, SBS가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지역은 2017년 12월부터 지상파 UHD 방송이 제공된다. 시·군 지역은 2021년까지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시작한다. 지상파 UHD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된 10년 뒤인 2027년에는 현재의 HD 방송이 종료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상파 UHD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코리아’를 설립해 UHD 방송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UHD 코리아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의 직접 수신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전사가 UHD에 안테나를 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상파 재전송 가이드라인 제정과 지상파 VOD 공급 중단 사태**

새해 벽두부터 지상파 방송의 VOD 공급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가 격돌했다. 양사는 2015년 말부터 지상파 VOD의 대가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케이블TV가 지상파 VOD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는 VOD 가격 인상, 가입자당 대가(CPS) 도입 여부, 지역 케이블TV에 VOD 공급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VOD 대가 지급 방식으로 기존의 정액제 지불 방식을 가입자 수에 기반한 CPS 도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역 케이블TV에 VOD 공급 여부를 둘러싸고 협의하게 대립했다. 지상파 VOD 이용료 협상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는 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모든 가입자가 VOD를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TV 다시 보기 VOD 서비스를 중단이라는 조강수를 뒀다.

2016년 고질적인 국내 방송가의 분쟁 거리였던 재전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상파 재전송 가이드라인 제정과 방송유지명령권을 처음 발동하는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다. 우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 분쟁의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지상파 재전송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지상파 재전송 가이드라인은 지상파 재전송 협상의 양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의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지상파 재전송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향후 재전송 협상 과정에서 일방의 협상 거절이나 미온적 협상 태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시 소송 등으로 해결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사전에 관련 부처가 협상을 중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상파 재전송료 분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MBC가 재송신료 갈등을 빚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내달 4일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서자 방통위가 방송유지명령권을 발동했다. 방송유지명령권은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실제 중단될 경우 방통위에서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한 방송법 제91조의 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의거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 통보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은 한 차례,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이번 방송유지명령권의 발동은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리우올림픽 광고 판매액 저조-런던올림픽 대비 40%**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이 리우에서 개최됐지만 시차와 성적 부진으로 런던올림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광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리우올림픽 중계 방송 광고 판매량은 사별로 평균 80억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고 판매액이 부진했던 것은 리우올림픽이 12시간의 시차로 인해 주요 경기가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열렸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단의 성적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될 때마다 광고 특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이번 리우올림픽의 경우 기대 이하의 광고 수익을 거두면서 더 이상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광고 특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오피니언 |

## 타임머신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칼럼의 주제 찾기를 포기했다. 촛불이 횃불로 바뀐 지금, 무슨 주제를 다룬들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작성하기도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응급 실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논어, 맹자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심지어 삼척에서 맷돼지가 주민을 공격해서 주민이 사망했다는 고인들 시대 같은 쇼킹한 뉴스도 묻혀버리는 현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 칼럼은 '여기서 끝'. 이렇게 하고 싶지만 '국정 농단'에 이어 '칼럼 농단'이란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계속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ㅠㅠ

요즘 들어서 '기호 1번'을 찍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1번을 찍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2012년으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한다. 아 정말 살다 보면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하는 순간들이 가끔 있다. 소싯적 연애 시절 한때, 사귀던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됐던 적이 있다. 그때 몰던 차의 주행거리가 약 20,000km였는데, 10,000km였을 때는 사이가 무척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10,000km를 후진으로 주행하면 혹시 관계가 복원될까 하는 유치찬란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일종의 후진(?) 후진(後進) 타임머신 개념이다. 지금도 가끔 계기판을 조정해 주행거리를 측정하면서 조작했으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미련함의 어원은 혹시 '미련이 남다'에서 온 것이 아닐까?

'타임머신'이란 주제는 예전부터 물리

학뿐 아니라 소설·문학으로도 등장했다. 최초의 소설 '타임머신'은 1895년 Herbert George Wells에 의해 빛을 보게 된다. 조지 오웰이 아니라 조지 웰스. 이 소설에는 시간여행자가 약 80만 년 후의 시대에 떨어져서 겪는 일을 그린 것으로, 미래를 Utopia가 아닌 Dystopia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현재를 바꿀 수 없다면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그 책임을 확실하게 추궁하는 것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그린 좀 우울한 작품이다. 소설뿐 아니라 시간 이동에 관련된 영화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것 같다. 'Back to the Future' 시리즈부터 'The Visitor', '나비효과', '시간여행자의 아내', 'Interstellar' 등등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다. 물리학적으로는 타임머신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이미 시공간 저너메에 있다. '인터스텔라'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대체적으로 시간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돼 있다. 기록 방식으로 비교하자면 'Read Only'. 다만 암시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끔 예지몽을 꾸었다는 정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의 염원과 달리 우주는 절대로 쉽사리 그 기운을 모아주거나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현재를 바꿀 수 없다면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그 책임을 확실하게 추궁하는 것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요즈음 상생의 의미로 좋게 사용하는 단어

인 'Collaboration'은 프랑스어 사전에는 두 가지의 의미로 기록돼 있다. 1) 공동 작업, 협력 2) (제2차대전 비시정부의) 대독일 협력 정책, 대 독일 협력. 따라서 2)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역자'나 부역스러운 행위를 말한다. 얼마 전 KBN부의 라디오 아침 방송을 들으니, 프랑스에서 2차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던 내용을 모은 역사 전시회인 '라 콜라보라시옹'이 서울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친일 부역자 관련 전시회를 프랑스 파리 시청에서 여는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철두철미하다. 그네(진짜 '그들'이란 뜻)들 말로는 톨레랑스는 서로 다름에 대한 무차별 관용의 개념이자, 부역자 책임 추궁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즈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명품 가격을 심하게 차별하면서.

되돌아보면 20세기 들어서 방송기술계의 가장 큰 사건은 DTV 방식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방식인 DVB나 미국 방식인 ATSC나 하는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10여 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한국 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함께 지금은 '완장 달고 취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어느 방송사만큼은 일관되게 유럽식을 주장했다. 장단점이 분명 존재했으므로 지금에 와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유럽식으로 결정했더라면 DMB 방송은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어찌면 우리나라는 자뻑스럽지만 HDTV 선진국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 후 UHD TV의 표준이 ATSC 3.0으로 결정되는 과정과 같이 유연한 협의 과정이 결여됐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UHD TV 주파수 문제가 확대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8VSB 방식을 주장하면서 정말로 영혼을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부나 가전사에서 원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정 후에 유럽 방식을 주장했던 엔지ニア들이 마음 편하지 못하게 지내왔던 세월을 돌아 보면 기분이 좀 짠하다. 역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 법인가 보다. UHD TV 표준이 합의에 의해 정해진 요즈음 부쩍 나전철기 전통 공예품이 마음에 든다. 그런 '자개감' 참 좋다.

## 사설

##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횃불이 됐다.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촛불은 곧 꺼질 것이라 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차 촛불집회부터 6차 촛불집회까지 광장으로 몰리는 국민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지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촛불이 횃불이 되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움직였다. 야당의 탄핵 움직임을 모르쇠 하던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공표와 상관없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눈치만 보던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촛불이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자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픈 부모 세대와 열심히 공부해도 나아지지 않는, 돈 있고 빼 있는 친구들만 살아남는 사회에서 살기 싫은 학생들의 의지가 권력에 따라 철새처럼 움직이는 정치권과 그런 정치권을 감시하기는커녕 동조한 언론을 움직였다.

참으로 대조적이게 공정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흔들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마도 촛불

의 숫자에만 집중했을 뿐, 내재된 민의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결국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했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정치권의 뜻이다.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후의 정국 정상화에도 긴 시간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내재된 민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빠르게 정국을 수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대통령도 국민들을 위해서 늦었지만 마지막 결단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잃어먹고 자녀 세대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 조건 없는 퇴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용단이나 정치권의 사심 없는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 추운 날씨와 혼잡한 인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촛불을 들든 국민들의 분노가 희망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숙,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학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amp;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KOBA 2017**  
www.kobashow.com



## 27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7.05.16-19 | COEX

주 최 한국이엔엑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KBS·MBC·SBS·EBS·OBS·한국음향학회·한국음향예술인협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아리랑국제방송·tbs

문 의 한국이엔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